장수 비결은 '독한 맛'

MBC 예능 16년 방송 800회 맞아
김구라, 첫 방송부터 진행
"천수 다 누려…야성 각인됐으면"

왼쪽부터 김구라, 안영미, 유세윤, 김국진.

"'라디오스타'는 16년이나 됐지만, '독한 맛'을 유지하고 있죠."(김구라)

2007년 5월 30일부터 방송을 시작한 MBC 최장수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가 18일 800회를 맞는다.

첫 방송부터 진행을 맡아온 김구라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에서 열린 '라디오스타' 800회 기념 간담회에서 프로그램의 장수 비결로 '독한 맛'을 꼽은 뒤 "시청자들에게 야성 있는 프로그램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구라는 "방송계는 흥망성쇠가 정말 심한 편인데, 오랜 세월을 버텨온 우리 MC들도 대단하고 제작진,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래된 것들에는 익숙해지고, 새로운 것들에 눈길이 가기 마련이지만, '라디오스타'가 16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구라는 그러면서도 "언젠가 '라디오스타'도 막을 내리겠지만 천수를 다 누렸기 때문에 슬프지는 않을 것 같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라디오스타'는 지난 16년 동안 게스트 중심의 토크쇼라는 형식을 유지해왔다. 특히 진행자들의 거침없는 입담과 날카로운 질문은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고, 관찰 예능이 주를 이루는 지금의 예능 판에서도 자리를 굳건히 유지하고 있다.

김구라는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른 토크쇼와 다르게 해왔고, 요즘 아주 순해졌다고 하더라도 특유의 '독한 맛'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토크쇼 제작 환경은 계속 나빠지고 있고, 사실 연예인들과 솔직하고 속 깊은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10대 출연자가 와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얘기는 안 하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편집을 요구하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어느 정도 다 갖춰진 상황에서 하는 토크쇼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10~20%의 재미를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에 합류한 김국진은 '독한 맛'도 있지만, 과거와 비교해 '순한 맛'도 더해졌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라디오스타'는 계절로 따지면 겨울이었을 것 같다. 분위기가 추웠고, 출연진은 방한복을 입으려고 했다"면서 "요즘은 봄도 있고 여름도 있다. 독한 맛과 더불어 온기도 있다"고 짚었다.

연출을 맡은 이윤화 PD는 "'라디오스타'는 조급함이 없어진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끄는 웹 예능 프로그램들은 MC가 돋보여야 살아남을 수 있지만, '라디오스타'는 이미 자리를 잡은 프로그램이어서 게스트에 집중하는 진정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18일 방송된 800회에는 방송인 이경규, 코미디언 김준현, 배우 권율, 크리에이터 오킹이 출연해 입담을 뽐냈다.

/연합뉴스

오은영의 '놀이 처방전'

ENA 새 예능 '오은영 게임'

놀이로 아이들 5가지 발달영역 자극
유형별 놀이법 소개…260개 콘텐츠 준비

'육아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오은영〈사진〉 박사가 아이가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는 놀이법을 전수한다.

오 박사는 18일 온라인으로 열린 ENA 새 예능 '오은영 게임' 제작발표회에서 "'아이와 어떻게 놀아줘야하나'라는 많은 부모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었다"고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기존에 오 박사가 출연한 육아 예능이 주로 특정 문제를 겪는 아이들을 관찰하고 솔루션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면, '오은영 게임'은 아이들의 발달에 필요한 자극이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부모들이 아이들과 놀면서 실행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오 박사는 "아이들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태어나지만 이게 다 완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아이들 발달에 필요한 자극을 줘야 한다"며 "그게 바로 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놀이는 평생 살아가는 힘이 되는 발달 자극을 주는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오은영 게임'에서는 아이들을 발달 영역에 따라 관계, 신체, 언어, 인지, 정서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맞는 놀이법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로고가 오각형인 것도 이를 상징한다. 아이들의 유형에 따른 반응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100명의 아이가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모습도 공개된다. 예를 들어 '인지형' 아이는 머리 위에 떠 있는 드론을 보고 '와 멋지다'라고 감탄하는 게 아니라 '와 드론이다'라며 설명한다.

오 박사는 "아이가 태어나 말을 하고,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고, 사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살아가야 하는데 중요한 5가지 발달 영역이 있다"며 "5가지를 꼭짓점으로 연결하면 오각형이 나오는데, 놀이를 통해 이 오각형을 균형 있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송에는 패널로 출연하는 배우 안재욱, 정준호, 인교진 등 아빠들이 오 박사의 조언에 따라 자녀와 놀아주는 법을 배우는 과정도 공개된다.

오 박사는 "방송 말미에는 3세부터 7세까지 다섯 연령대의 아이가 52주(1년)간 할 수 있는 260개의 놀이 콘텐츠도 준비돼 있다"며 "매주 놀이를 잘 따라가면 아이가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프로그램 MC를 맡은 신동엽과 이민정도 자녀가 있는 시청자들의 공감 포인트가 많다고 입을 모았다.

신동엽은 "방송을 보면서 '아 우리 아이는 어떤 유형이구나', '우리 아이는 이 부분이 덜 발달했구나'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엄마와 아빠가 품을 많이 들이지 않아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놀이법도 공개된다"고 말했다.

오는 24일 첫 방송.

/연합뉴스

설 연휴 교통체증 '라디오'로 달래요

TBN광주교통방송, 21~24일 설날교통특별방송…오락·퀴즈 등도

TBN광주교통방송(이하 광주교통방송)은 차량 이동시간이 긴 설날 연휴를 맞이해 특별 방송을 기획했다.

광주교통방송은 설날 연휴 21일 오전 6시부터 24일 낮 12시까지 '안전한 길 행복하길! TBN 설날교통특별방송'을 내보낸다.

이번 특별 방송에서는 21일부터 22일까지 '부릉부릉 12시'(12:00~14:00)와 '주말N허쇼'(14:00~16:00)를 선보인다.

'부릉부릉 12시'에서는 광주 금곡서당 서상일 훈장과 함께 우리 고유의 명절 설날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본다. 또 광주교통방송 교통캐스터들을 특별 게스트로 초대해 토크쇼를 펼친다. 신나는 음악 메들리도 함께해 청취자들의 설 연휴 이동 길을 지루하지 않게 달랜다.

'주말N허쇼'에서는 '양수영의 전통시장 이모저모'(21일), '박문선의 방랑여행기'(22일)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생생한 설 풍경을 전달한다.

또 완도의 생일도와 고흥의 연홍도 이장과의 전화 연결로 전남 섬 이야기와 섬 명절 풍경을 알린다.

23일부터 24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스튜디오 973'을 열고 'TBN 천하제일 퀴즈대회'를 실시한다.

청취자가 함께하는 퀴즈 코너로 'OX퀴즈', 청취자 3명이 연달아 퀴즈를 맞춰야 선물을 탈 수 있는 '쓰리고 퀴즈', MC들과 청취자가 대결하는 '니편내편 퀴즈' 등 다채롭게 마련됐다.

또 정통 오락 프로그램 'TBN 차차차'에서는 '차차차 유랑극단'와 '달리는 라디오'도 열린다.

'차차차 유랑극단'에서는 23일 가수 최나리와 빛고을 아코디언팀이, 24일에는 가수 박성현이 함께한다. 이들은 옛 가요를 변사 악극에 녹여내며 청취자들의 옛 향수를 자극한다. 또 '달리는 라디오'를 통해 19금 고전 해부학 중 베스트를 뽑아 다시 듣는 특별코너도 선보인다.

광주교통방송은 각종 프로그램 뿐 아니라 설연휴 중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나 대형 교통방송 등 사회 재난 발생 시 재난 특별방송을 송출할 계획이다. 혼잡이 예상되는 국도1호선, 국도22호선, 국도29호선 등 지역 주요 관문에는 방송 통신원 20명이 투입되며 이들을 통해 고속도로와 국도 정체 상황, 우회로 등을 알린다.

한편 이들은 연휴 전날인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호남고속도로 곡성휴게소(순천 방향)에서 광주교통방송 임직원,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지역 본부, 광주교통문화연수원 등 6개 유관기관과 함께 안전운전 캠페인에 나선다.

광주교통방송 주파수는 FM 97.3MHz(전남 동부권 103.5MHz)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